

## 겸손과 용서를 가르치신 예수님

겸손의 중요성과 실족케 하는 일에 대한 경고

“그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18:1)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세상적인 권세를 기대했습니다. 즉 더 나은 자리를 얻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그들의 동기가 그다지 순수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주 ‘누가 큰 가’에 대해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제자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18:2-4)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생각과는 너무 틀렸습니다. 즉 진정한 위대함은 낮아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입니다. 야고보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불러 가운데 세우시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는 자가 큰 자입니다. 참으로 위대해지는 길은 바로 섬기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18:5)

주님은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주님 보시기에 귀했던 순진함과 단순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18:6)

예수님은 100-200Kg이나 나가는 큰 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를 믿는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18:7)

조심하십시오. 실족케 하는 일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실족케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조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918:8-10)

범죄케 하는 손을 찍어 내버리라는 말씀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일들은 끔찍한 일입니다. 자신의 손을 자르고 눈을 빼는 일들은 생각만해도 혐오스러운 일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이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손을 자르고 눈을 뽑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몸 전체를 가지고 죄를 지으며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임을 설명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사향뒤쥐(musk rat)가 뒷에 걸렸을 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뒤로 돌아 자기의 발을 잘근잘근 물어 뜯어 뒷에 낀 한 쪽 발을 남긴 채 도망을 갑니다. 이것 역시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향뒤쥐에 관한 한,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네 다리를 지닌 채 뒷발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며 판자 위에 붙잡혀 있는 것보다 한 쪽 발을 버리고라도 목숨을 건진 것이 사향뒤쥐로서는 참으로 지혜로운 결정이라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예수께서도 같은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즉 ‘네 삶 속에서 너를 넘어지게 하고 네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 무엇이 있다면 잘라버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지금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제게 생기기라고는..., 정말 괴롭습니다. 제 아내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하며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끊어버리십시오. 내일 말고 지금 당장 관계를 끊어버리십시오.” 이에 대해 그분은 “하지만...”하며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만약 제가 의사였고 당신이 내게 와서 겨드랑이의 혹을 보이면서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말했는데도 내가 조직 검사를 통해서 임파선암인지를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단지 암일 수도 있겠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고통스러운 수술이니 그냥 아스피린이나 먹고 통증을 잊으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저에게 미친 의사라고 말하면서 고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되나 보게...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암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병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어떻게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죄가 있는데도 신경쓰지 않으며 그냥 가만히 두고 있다면 예수님은 단호히 그 죄를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병신이 되어 천국에 가는 것이 성한 몸을 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하십니다(개역한글성경에는 11절이 없으나 KJV에는 기록되어 있음-역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18: 12-15)

이것이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증참케 하고”(18:16)

이렇게 다른 사람 한둘을 데리고 가서 그로 하여금 그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18:17-1)

여기서 매고 푸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풀고 사단의 역사를 묶는 일을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기도하는 일, 즉 기도로 일치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대부분 은밀한 중에 행해집니다. 그러나 함께 일심으로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동역자를 두시기를 적극 권해 드립니다. 어떤 일로 인하여 함께 기도함으로써 그 짐을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일심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18:20)

가장 작은 교회의 형태는 두 사람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넷이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과 같이 ‘아, 오늘은 사람이 너무 적게 왔으니 나가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갖는 모임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아, 내가 만약 가버나움에 있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손을 내게 얹게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소원합니다. 그분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분께 나아가간다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과 믿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그분 앞으로 지금 가지고 나가면 그분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 용서에 대한 원리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18:21)

베드로가 일곱 번이라고 말했다 때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후하게 붙여서 예수님께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필경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 앞에서 칭찬해 줄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18:22)

예수님은 용서해 주는 일이 수학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조건 용서해 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때마다 그 수를 세다가는 결국 몇 번이나 용서해 주었는가를 잊어버리게 되고 ‘이것은 수학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구나’라고 깨닫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것에 대한 예화를 들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계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계할 때에 일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18:23-24)

한 달란트가 일억원 정도되므로, 일만 달란트는 이 금액의 일만 배나 됩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없드리어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18:25-28)

백 데나리온은 약 200만원 정도입니다.

“그 동관이 없드리어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18:29-35)

여기서 ‘중심으로’라고 하신 말씀에 유의하십시오. 이 말씀은 진정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보여줍니다. 용서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형제가 저지른 보잘것없고 별 것 아닌 말이나 행실을 용서해 주지 않고 원한을 품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 어떤 사람은 힐문할 것입니다. ‘조건이 있는 용서가 아닙니까?’ 즉 예수님이 행위에 의한 구원을 말씀한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려는 말씀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용서해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용서해 준다는 말만 하는 것 이상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요, 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이상 우리가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렇게 행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게 용서하는 영을 주십시오. 제게는 쓴 뿌리가 있고 그들이 내게 행한 일에 대해 복수하고자 하는 분노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용서할 수 없고 꼭 앙갚음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것들은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님을 압니다. 제게 용서하는 영을 주십시오. 이 쓴 뿌리를 제거해 주시고 용서의 영을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원한다면 주님이 제게 주실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원해야 합니다. 먼저 그렇게 하고자 해야 합니다. ‘중심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먼저 용서가 앞서야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